

미국의 우유자조금제도 시찰기

- ... 본고는 본회 김의수 회장이 지난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미국농민 단...○
- ...체의 자금조제도를 시찰한 후 작성된 보고서 중에서 낙농관련 부분만을...○
- ...따로 발췌하여 지난호에 이어 두번째로 소개한다. ...○

(87년 9월호 33p에서 계속)

미국농업은 농업조정법과 농산물 유통 협약법의 근거위에서 정부의 농산물 가격지지는 물론 생산자가 부담하는 자조금에 의해서 자구적인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발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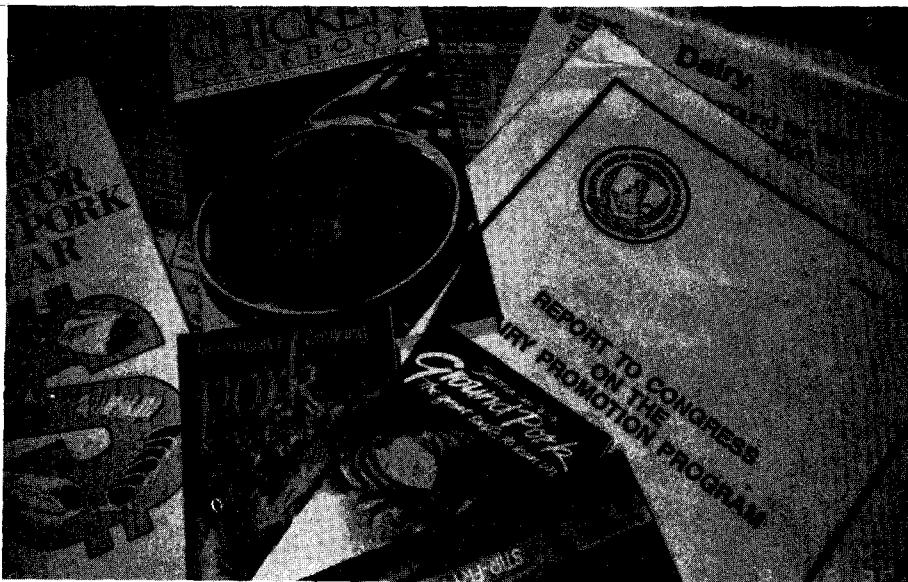
미국의 자조금제도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간단한 설명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처음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다가 차츰 의무적 참여로 변형되었는데 무임승차자(free-riders)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과세 및 경찰 권을 원용할 뿐 그 본질은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조금 제도는 우유를 비롯하여 품목별로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데, 생산자 단체가 청원하여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가히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조금 청원에 관한 처리과정이나 절차가 해당 품목에 따라 정해지면 이익집단의 청원안이 접수되고 청원안에 대한 공개논평이 접수되며 청원안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리고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참작하여 청원안이 다시 조정되며 이 조정안에 대한 공개논평을 다시 접수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정부는 생산자 단체가 제출한



청원안에 대한 최종적인 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의 최종안을 다시 해당 생산자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하는데 과반수 이상(혹은 2/3이상) 찬성을 얻으면 드디어 발효하게 된다.

이러한 합법적 절차가 끝나면 자조금의 부담자 즉 생산자 대표로 구성하는 운영기구를 조직하여 자조금을 관리하게 된다.

낙농분야도 자조금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낙농불황에 따른 어려움의 해결책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낙농은 이미 1950년대부터 우유 과잉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잉여우유를 정부에서 수매하여 줌으로써 해결해온 미국의 낙농은 '82년도에는 20억달러(약 1조 6천억원)를 들여 760만톤의 원유를 수매하기에 이르자 더이상의 지원정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의 우유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여야만 했다. 그것만이 낙농가가 생산한 우유가 가격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83년에는 낙농조정법(The Dairy and Tobacco Adjustment Act of 1983)이 의회를 통과했고 이 낙농조정법에 의해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증가를 주된 목적으로 제품개발, 연구활동, 영양교육 등에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낙농가의 자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원유 100 파운드(약 45.3kg, 12~13달러)당 15센트씩(원유대의 1.2~1.3%)을 자조금으로 납부하여 전국 총액은 2억 1천만달러('86년)에 이른다.

이중 2/3는 각지역 지방조직에서 사용하고 1/3은 낙농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낙농진흥연구위원회(National Dairy Promotion and Research Board)에서 사용한다.

미국의 우유자금 제도는 자율적인 참여로 활동을 1915년부터 시작해 원유가의 12~13달러당 15센트씩 납부

이 자조금은 법정 의무화되어 '8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시행 1년후인 '85년 낙농가의 찬반투표에서 90%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조금에 대한 미국 농민의 참여의식을 짐작케하고 있다.

미국의 우유 자조금제도는 자율적인 참여로 활동을 시작한 1915년도부터 볼 수 있는데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NDC(National Dairy Council)를 조직하여 아동의 영양교육과 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양연구등의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뒤 ADA(American Dairy Association, 1940), DRINC(Dairy Research Inc, 1969)가 조직되어 활동하는가하면 각지역 별로 실정에 맞는 자조조직을 결성하여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1971년에는 UDIA(United Dairy Industry Association)가 결성되어 지금까지의 다양한 영양교육, 유제품 개발 촉진 프로그램등의 중복된 활동을 통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실시해 왔다.

이렇게하여 '83년까지 농가 스스로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판매활동을 시도해온 것은 자율적인 자조금으로써 진행되었다. 그리고 '84년부터는 낙농조정법에 의한 의무화된 자조금제도로 정착되어 전국 낙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생산원유 100파운드 당 15센트의 자조금중 10센트는 UDIA가 관장하는 회원단체와 20여개의 지방조직 활동비로 사용되는데 각 지역별 낙농 규모에 따라 할당량의 차이가 있다. 나머지 5센트는 전국낙농진흥연구위원회에 배당되어 전국



적인 사업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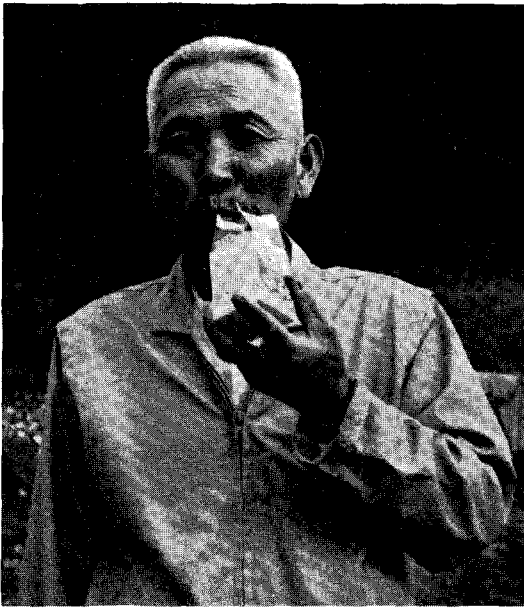
전국낙농진흥연구위원회는 미국 농무성이 인가한 생산자 단체와, 일반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데, 현재 3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농무장관이 임명한다.

동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낙농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위주로 활동하는데 광고홍보, 판매촉진, 제품연구와 개발, 영양연구와 교육·평가,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와의 섭외활동등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86년 동 위원회의 총예산 8천5백만 달러중 광고홍보에 6천1백만 달러, 영양연구와 교육에 7백만달러, 제품연구 및 개발에 4백만달러, 기타 1천3백만달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미국의 낙농회계년도는 5월 1일에서 익년 4월말까지 임). 광고홍보비 6천 1백만달러 중에는 1천 4백만 달러가 시유홍보비, 2천 1백만달러는 치즈, 4백만달러는 버터, 1천 8백만달러는 칼슘, 그리고 4백만달러는 아이스크림 홍보에 지출되었다. 치즈시장 확대를 겨냥한 홍보와 특히 우유성분중 칼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홍보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소비촉진 활동에 생산자인 낙농가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농민의 힘에

이러한 자조금의 운영은 다양한 영양교육 유제품 개발 촉진프로그램, 광고 홍보 각종 언론매체와의 섭외 활동등 광범위한 활동



더우기
소비촉진 활동에
생산자인 낙농가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농민의 힘에 의해 정부가
움직여지는 농민주도형 낙농산업
으로 발전 년 10%가
소비증가

'87년 1/4분기 동안 우유 및 유제품 소비는 '86년 동기에 비해 3%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우유 소비증가의 배경에는 여타의 경제 사회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낙농 진흥프로그램의 역할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우유광고 홍보활동은 우유에 관한 영양 건강 등,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이 전국구와 연계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낙농문제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집결지로서 종합낙농센터를 수개의 주립대학을 한 단위로 묶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학문분야는 주로 낙농, 사료, 유가공, 식품영양, 마케팅, 농업경제 등으로 대별된다. <끝>

의회와 정부가 움직여지는 것은 바로 농민주도형 낙농산업 추구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자조금제도가 실시된 '84년~'86년의 우유 및 유제품 소비는 약 10%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 증가수치는 이제까지의 우유소비에 있어 가장 큰 기록이다.

'86년에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거의 600파운드(약 272kg)에 달해 1966년 이래 최고수준을 보였다.

우리모두 협회가입 나의권익 주장하자
